

- 민주주의와 노래의 힘
--노래는 공감과 기억의 매개체이다.



김창남(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

우디 거스리(Woody Guthrie,
1912-1967)

피트 시거(Pete Seeger,
1919-2014)



밥 딜런(Bob Dylan,
1941-)
존 바에즈(Joan Baez,
1941-)



밥 말리(1945-1981)



빅토르 하라(1932-1973)



메르세데스 소사
(193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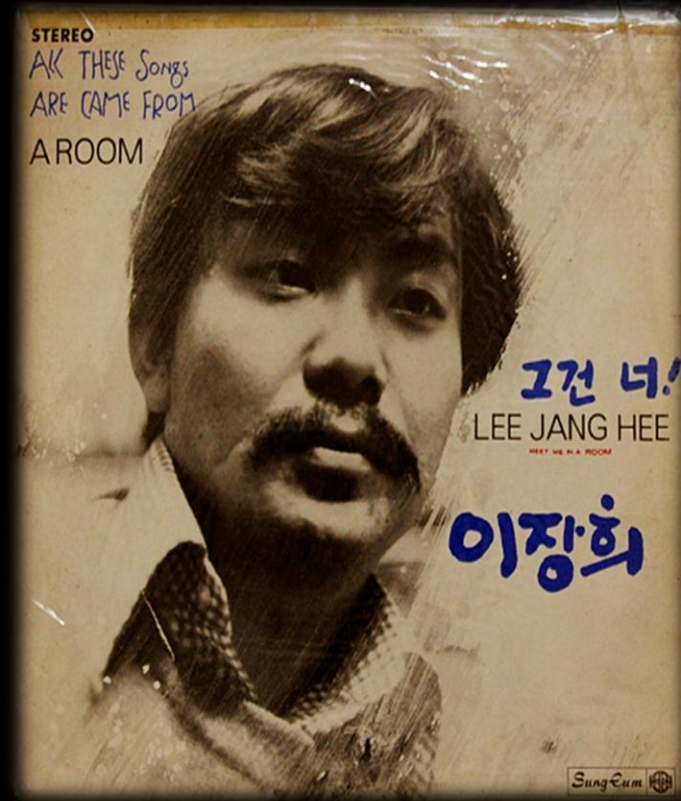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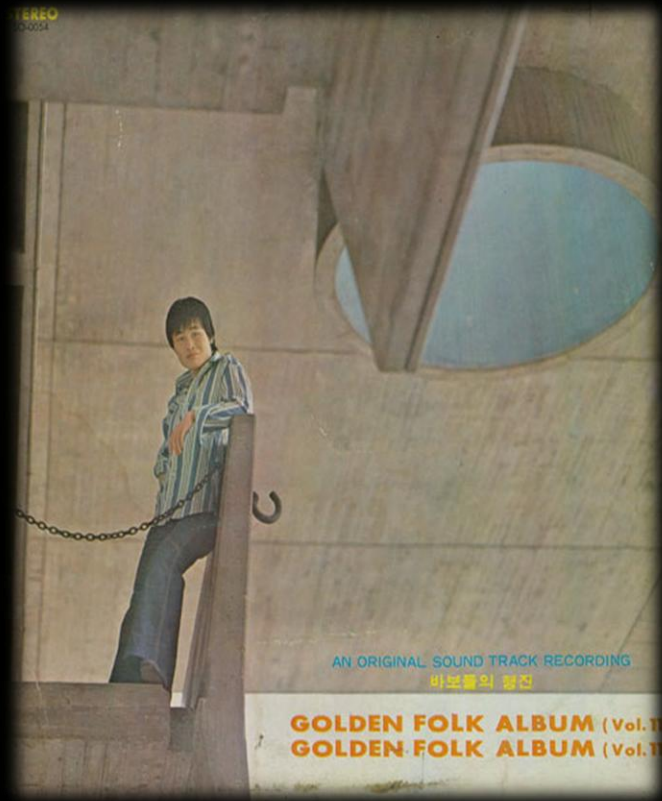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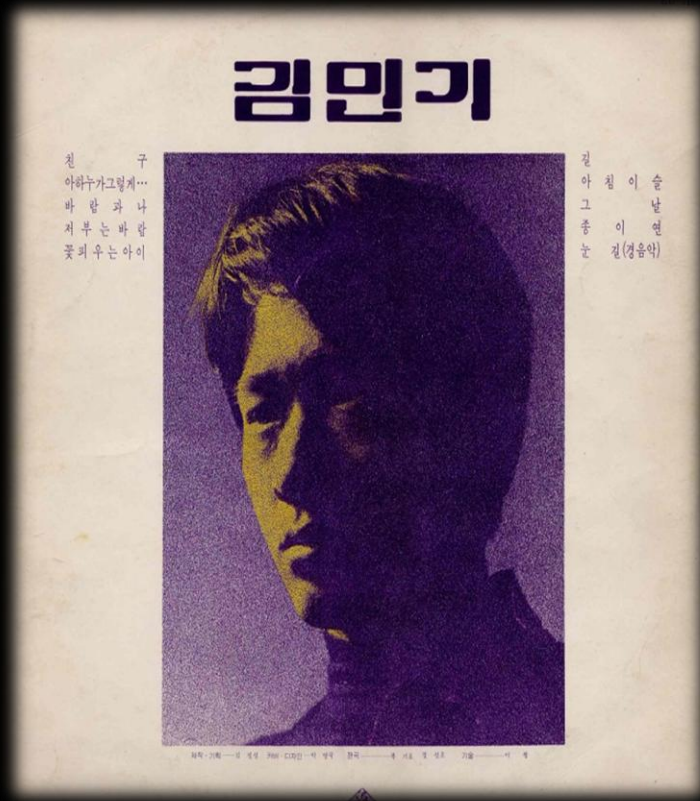


U2 (보노)



존 레논(1940-1980)

1970년대 초반의 청년문화



1970년대 초반의 청년문화



1970년대 초반의 청년문화



국가의 통제와 규제 - 일상에 대한 억압

1975年12

인기가수 박복희가 무대기르 구속되고 상
술흔들여져 알려진 30여명의 연예인이 지명
수배되는등 가요계를 벌집 쑤신듯한 대騷
소騷를 겪는 등 충격이 컸던 사건이었었던 것
인지 쉽게 끄그러 사라지지 않고 후유증은
계속되고있다. 중국자국에 대한 정신병력의 진
단,「쇼·프로」 「넝크」로 몰상이 되있있는
방송국, 대책에 골라하는 演協의 非常등이
大騷소騷등의 후유증이다.

정신감정받은 女歌手

『지금쯤 어떤 상태일까?』 이
의 구속 인의인들을 대한 『평
들의 가장 큰 공음들이다.

대마초를 피우다 경찰에 적
된 30여명의 인의인들은 그곳
한두차례의 西大門區廣善洞에
는 시립 정신병원(원장 朴容

大麻草상습음자로 구속된
尹亨柱 李章熙 金秋子 申重鉉

에가 정신감정을 받았단 그
때에 이 정신감정 결과 많은 연
예인들이 신한 인격 (人格)
완성에 보이고 있다는 진
단이다. 나와 또한인 관계자들을
중개자 重慶인 작곡가 車東伊
작곡가 車東伊

[illegible]

수면제나 진통제물에 의한
중환자에 비해 심적응응은 가
벼운 중환자를 보았으나 정신
적응응은 아주 심한 파적 현
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부분 중환환자들은 3, 15
일 안에 지적기능으로 심층을
따뜻하게 해주는 정신과적 응
조치(단기치료)를 받거나 근
원인 정신요인 장기치료를 받

「내직업은 沈淸」 가물가물 헛소리까지

아무데서나 소변보는등 사람버려

고있다.

[illegible]

病院인지 집인지 구별도 못해

精神병원 신세지는 30명 대부분 一流

덕택에 빛보는 「한가했던 사람들」

못 왔다"고 했고, 한 달의 지참금도 따돌림당한 "프로"는 "나는 프로"한 표현을 기하학의 별, 파기였는데, 은은 출연연의가 밀려들어 이번 일에도 10년나 출연연정원이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표현

玉子가 부해서 처벌을
인기 가수들의 노대로 현
는 각종 프로가 TV의 거
20% "판돈"의 경우 거
9%인 말적인 비출을 차하
있는 "타라 자방을" "프로" 제
다. 탐랑자들은 하루마다 "프로"에
보내 사자를 파지자이인지
말, 역시 복제품 실패자판
탐을 받고 있다고 부름을
그런가 하면 演演산하 5개

비상이 걸렸다. 연일 회의의 의를 지휘하는 가수·연주자들과에서는 20명씩 지도요원을 발자 동원장을 순회하면서 인텔로 대마초 흡연여부를 조사하려고 하던 지명수배원 명령의 연영인연 대해선 거처 확인되는대로 연락을 취해서 수할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술된 의연애인 가운데 6월만 의 회원이나 단체장이 드러나지 않는데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李源熙를 비롯해 尹亨求, 李炳賢을 상당의 이름 있는 회원으로 소개하고 있는 상당파에서 의연애에 대해서는 의연으로서도 아무런 지도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의기다. 이들은 대대적으로 은연애를 작음에 남기지 않겠지. 물론 새 의에도 드물게 끼쳐 있을 것이다.

국가의 통제와 규제 - 일상에 대한 억압

주 권 中 央

1975年 6月 29日 (18)

禁止된 43개 曲目과 그事由

작품명	禁止事由
깃말이야	가사내용 불신감조
서의 순정	가사내용 폐해
정한 밤배	국 일본색 농도질고
노의 블루스	가사폐해
금은 남남이지만	가사폐해
스티리움분하다	가사·곡 외곡모방저속
있거라 부산함	가사저속 곡지나친
도로스 도롬바	가사폐해 창법저속
구의 0번지사람	가사저속 주제성없는곡
메리칸마도로스	가사저속 창법저속
두가 붙이였네	가사저속 창법저속
술은청춘	가사폐해
금백준	가사폐해
남편	제목 가사내용통폐
비같은 사람	가사내용통폐 저속
기저소리	곡폐해
한숨이	가사 곡비판조
장이 아가씨	곡폐해 자극적창법
내	창법 곡저속
형게해요	가사 곡저속
시 아가씨	가사허영과폐조장
일 다시만나요	일본가사 완전표절
가 좋아	가사창법저속
를두고 가지마	가사저속
상에 만약 여자	가사저속
사정도 모르고	가사창법저속
요일의 손님을	가사 무기력 불건전
께 감시다	가사저속
시의 이별	가사저속
터기 아파	곡 창법비판조
은여자	가사폐해
버린 달배	가사저속
생은 주막	가사창법저속 허무
복은 왜잡아요	가사폐해
바의 이름은	가사비판 저속
편말함	가사 불건전 반항적
날때도 됐지	가사불건전
인	불건전
정사정불경했다	가사폭력반항감조장
지 못해	가사 창법저속폐해
는척하지만	가사폐해
광의 순간	곡표절
을이야기	가사저속 청소년불

藝倫이 이번에 금지 시곡가 유메는 상당한 「이브」를 보였던 「거짓말이야」(金秋子노래) 「기터기 아파」(李美子노래) 「무정한 밤배」(「패니」노래) 등이 끼여 있다. 창법 저속과 폐해성 가사가 금지 이유이다.

이번 금지곡 내역은 藝倫이 75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받은 LP「테코」14장(1원3백92곡) 가운데 총 43곡. 앞으로 74년도 73년도 하는 식으로 소급해 나가. 폐해성에 발표된 곡도 「디스크」로 나와 있던 재심을 한다. (總演 藝倫 위원장)

藝倫의 금지결정은 방송만 하는 방편의 금지와는 달랐다. 그

대중가요 정화의 거센바람이 계속 연에가에 휘몰아치고있어 관계자들은 이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번져갈지 큰 관심을 보이고있다. 藝倫은 지난21일 이미 발표된 곡중에서 제1차 금지곡으로 43곡을발표했고 앞으로 이 금지곡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여 연에가에 서 받은 충격은 큰것으로 알려졌다.

대해 한편에선 「대중가요가 저속 무기력한 가사가 대중(大衆)을 이끈다」 왔으니 차례에 새로운 것의 대중가요 풍토가 형성되리라 본다. 하지만 가요계 일부에선 「가창법적으로 제작 배포해놓은

노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셈. 따라서 유메제작이나 판매는 물론 공연하가들 입에 공연하는 각종 「쇼」 무대등에서도 불릴 수가 없다.

수많은 「테코」를 모조리 폐기 처분 해야할 입장이다. 그러잖아도 영세성에 시달려온 유메계가 더욱 타격을 받게됐다」고했다. 「이런다나 다른 전진한가요 「디스크」 가운데 양념으로 금지 입장이된것이다.



藝倫의 감정한 재심의로 「디스크」가든 상당한 영향을 입게됐다.

唱法저속·퇴폐성을 이유로

새로운 風土형성에 기대걸어...

藝倫서 1次 심의로 43곡금지... 계속 늘어날것

金熙祚·黃文平·李眞鏐·文貴 等 10명의 藝倫 심사위원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디스크」 발표한 당시의 상황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판단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不健全대중가요 最後의審判

국가의 통제와 규제 - 일상에 대한 억압

대표적인 금지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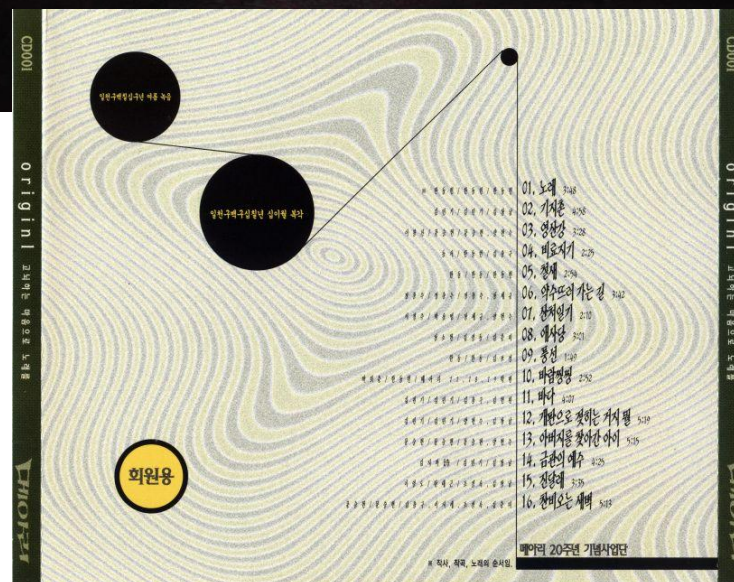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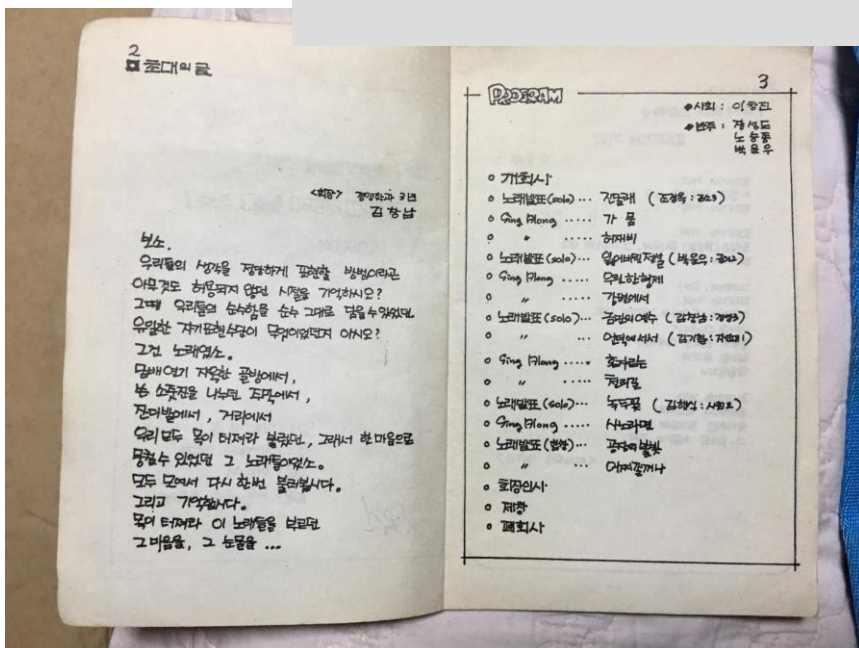
- 김민기 → 〈아침이슬〉 : 사실상 모든 곡 금지
- 이장희 → 〈그건 너〉, 〈한 잔의 추억〉 : 퇴폐
- 송창식 → 〈왜 불러〉 : 공권력도전
- 〈고래사냥〉 : 시의부적절
- 신중현 → 〈미인〉 : 퇴폐
- 〈거짓말이야〉 : 불신풍조 조장
- 한대수 → 〈물 좀 주소〉 : 사실상 모든 곡 금지

국가의 통제와 규제 - 일상에 대한 억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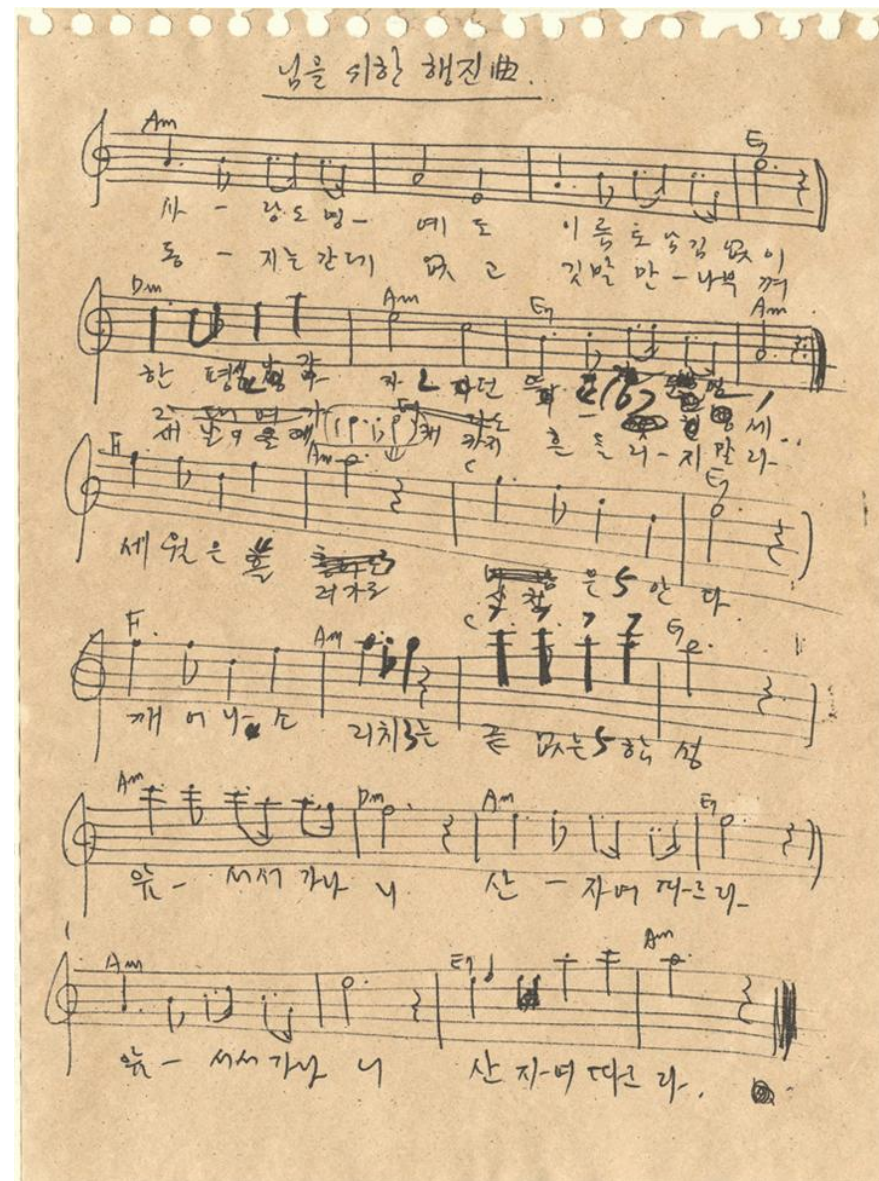
대표적인 금지곡

- Bob Dylan → Blowing in the wind : 반전
- Beatles → Revolution : 불온
- C.C.R. → Have you ever seen the rain : 불온
- Joni Mitchell → Woodstock : 불건전
- Queen → Bohemian Rhapsody : 불건전
- Joan Baez → We shall overcome : 반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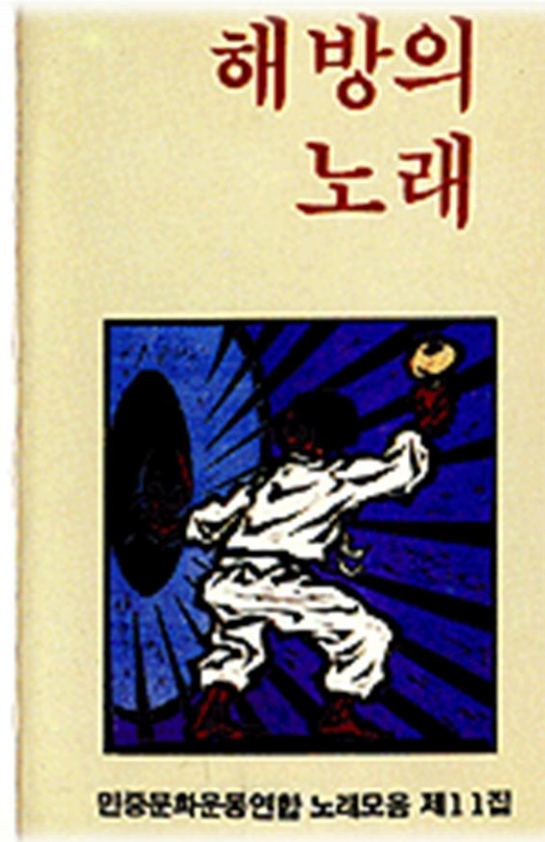
노래운동과 민중가요



노래운동과 민중가요



노래운동과 민중가요



노래운동과 민중가요

건강한 대중가요의
방향을 찾는 노래마당

아침이슬
백악기 돌에도 봄은 오는가
그루터기
그날이 오면

출연 : 김광석
박미선
송숙환
이주익
조성옥

노래를 찾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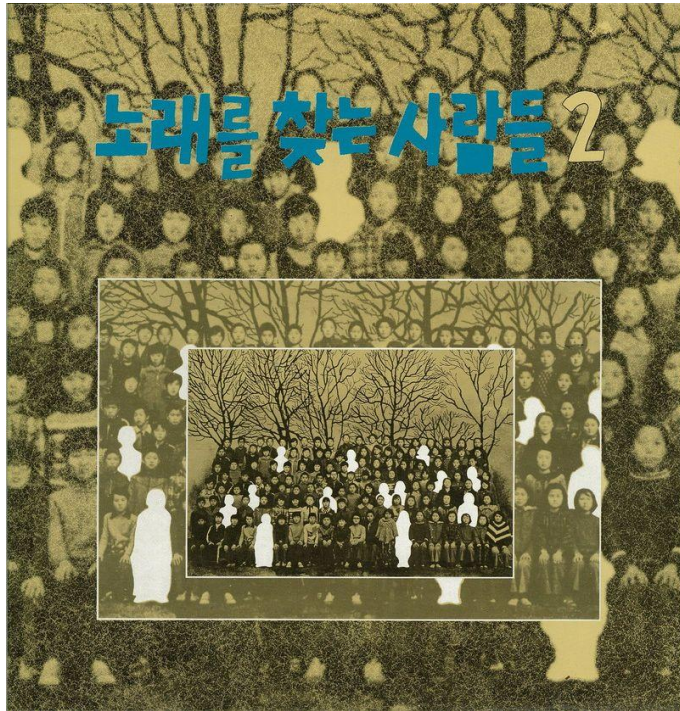
• 때 : '87. 10. 13(화), 14(수) 7시 30분 • 곳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종로 5가, 741-4370)

노래를 찾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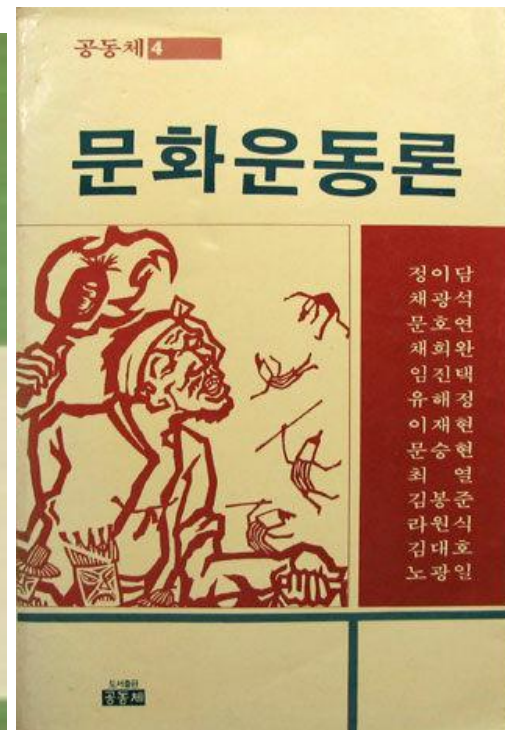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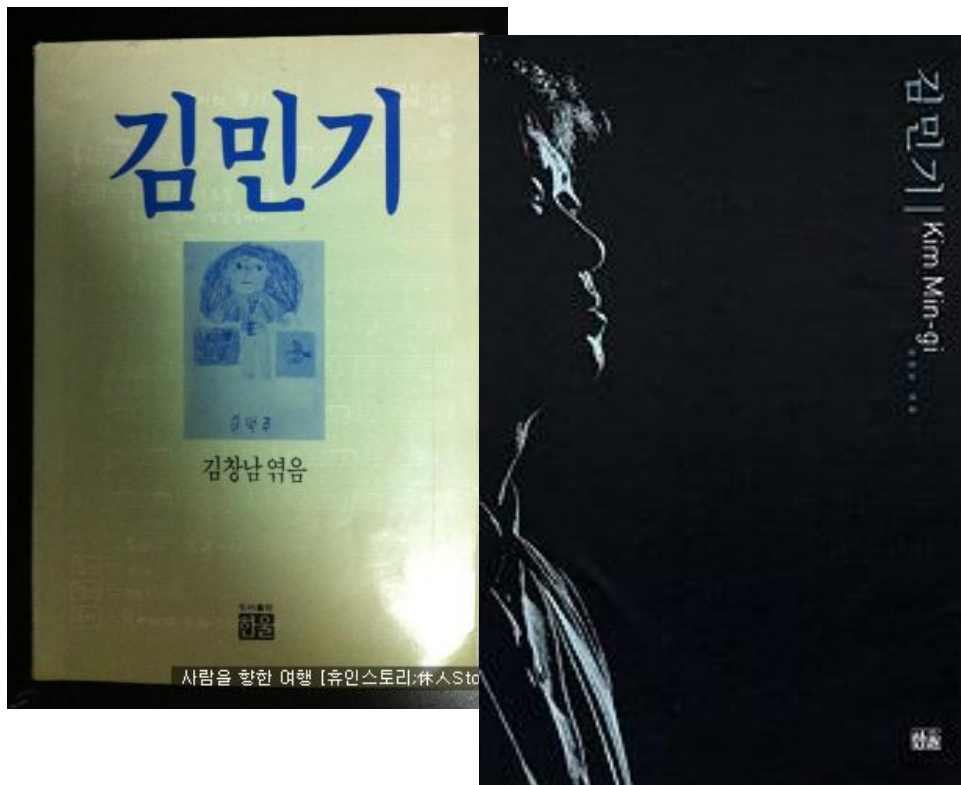


영상출처: www.nochatsa.org
Blog: blog.naver.com/black_stones
YouTube: www.youtube.com/pp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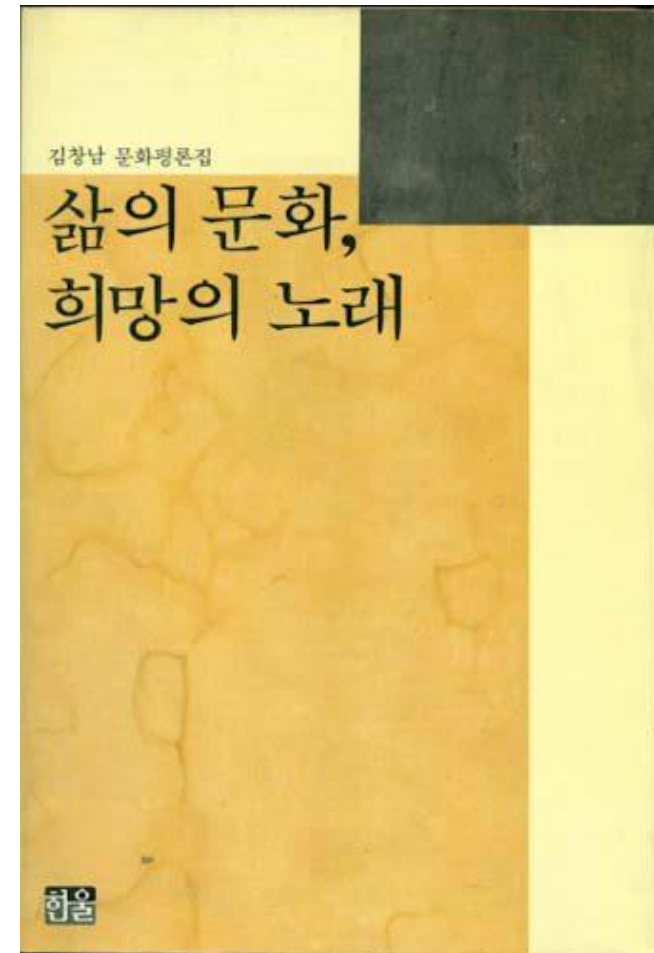
노래운동과 민중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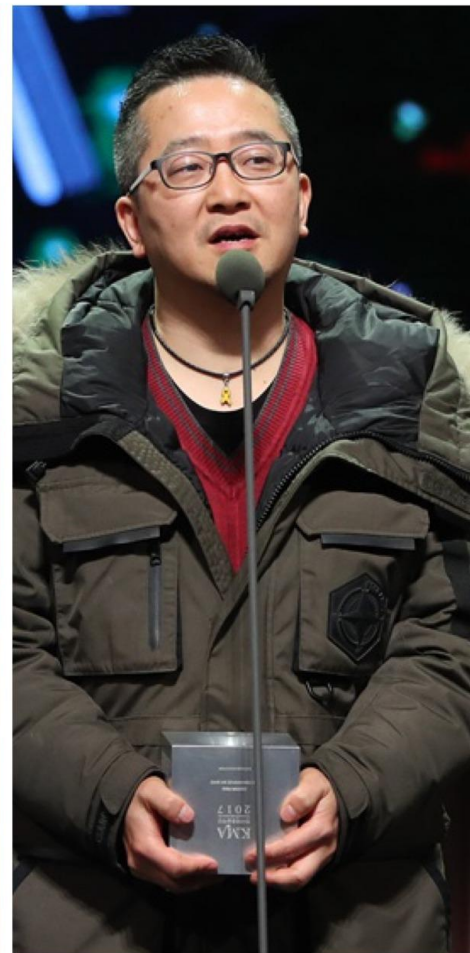
노래운동과 민중가요



노래운동과 민중가요



문승현, 김호철, 윤민석



21세기, 민중가요...



21세기, 민중가요...



21세기, 민중가요



- 민중가요의 대중음악사적 의미
 - --검열철폐와 표현의 자유, 대중음악의 스펙트럼 확장,
 - 대중의 자발적 적극적 선택과 수용-인디 음악
 - 계몽인가 성찰인가
-
- 권력에 대한 모든 투쟁은 망각에 대한 기억의 투쟁이다.
 - ---- (밀란 쿤데라 <웃음과 망각의 책> 중에서)
그리고.. 기억 투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노래다.